

“2순환도로 1구간 운영 과정 상납구조 있었다”

전 광주시 간부가 유서에서 제기한 의혹들 보니

시설관리업체 회장이 운영사 사장에 “다 불어버리겠다”

맥쿼리, 운영비 부풀려 광주시에 지원금 청구 횡령 주장

전국 10여개 사업장 무면허업자에 수년째 관리 맡기기도

지난 19일 숨진 채 발견된 광주시 전직 간부 공무원 A(61)씨(광주일보 3월20일자 1면)가 유서를 통해 광주 2순환도로 1구간(두암IC-소태IC·5.67km) 운영 과정의 각종 비리 의혹을 제기하고 나서 파문이 예상된다.

유족들도 고인이 제기한 각종 의혹에 대해 수사기관이 철저히 규명해 줄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20일 유족이 공개한 유서에 따르면 숨진 A씨는 제2순환도로 1구간의 시설 관리와 운영사내에서 상납구조가 있었다고 주

장했다.

광주2순환도로 1구간을 운영하고 있는 광주순환도로투자(맥쿼리)가 도시시설관리용역업체와 10년 이상 장기 계약을 하는 과정에서 상납구조가 만들어졌으며, 지난해 3월 운영비 절감을 위해 통행료 수납용역업체와 시설 관리업체를 통합위탁 운영하려 하자 시설관리업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는 것이다.

A씨는 “술자리에서 통합 위탁운영을 얘기하던 중 시설관리업체 B회장이 운영사 C사장에게 술잔을 던지며 ‘그동안 있었

던 상납구조에 대해 다 불어버리겠다’ 등의 말을 하며 행패를 부려도 그대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주장했다.

A씨는 또 맥쿼리측이 운영비를 부풀려 광주시에 지원금을 청구하는 방식으로 차액을 횡령했다는 주장도 내놨다.

2015년 광주시 도로과장으로 부임해 맥쿼리와 재(구조화)협약을 담당했던 A씨는 유서에서 “광주시에 가장 유리한 형태로 변경협약을 체결하자 이익이 줄어든 맥쿼리가 나를 미워해 모함했다”며 “맥쿼리는 실제 운영비보다 훨씬 많은 운영비를 광주시로부터 받았지만 현장에 100% 투입하지 않고 차액을 횡령하고 있지 않느냐”고 의혹을 제기했다.

당시 순환도로 건설 비용을 부담한 맥쿼리에 대해 광주시는 최소운영수입을 보장(MRG)해 주는 방식을 적용, 지난 2001년부터 지난해까지 2041억원을 보조했다.

A씨는 또 “광주제2순환도로 1·3구간을

운영하는 맥쿼리가 전국 10여개 사업장에서 수년째 무면허업자와 계약을 맺고 교량이나 터널을 관리하고 있다”며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라 전국 모든 사업장의 주무관청에서 맥쿼리를 공익처분에 해지시 지급금 85%만 받고 쫓아내야한다”고 강조했다

다.

숨진 A씨의 사위는 “수사기관에 크게 바라는 건 없다. 유서에 적힌 대로 아버님이 억울하다고 주장한 내용과 제기한 의혹을 밝혀주길 바란다”고 호소했다.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광주경찰, 유서 언급된 편파수사 확인키로

뇌물혐의로 수사를 받다가 숨진 전 광주 시청 간부 공무원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수사 과정의 적절성 여부를 살펴볼 것으로 알려졌다.

20일 광주지방경찰청 등에 따르면 경찰은 이 사건 관련 담당 수사관들을 상대로 경위를 확인할 계획이다.

경찰은 특히 이 공무원이 숨지면서 남긴 유서에 경찰이 편파수사를 했다고 주장하며 일부 수사관을 지목한 만큼 사실관계

및 수사과정이 적절했는지 등을 확인하기로 했다. 경찰 관계자는 “언론을 통해 공개된 유서에 수사 문제점을 언급한 부분이 있는 만큼 일단 사실관계와 경위 등을 살펴볼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해당 사건 수사팀의 한 관계자는 “돈거래 정황이 나왔고, 변호사 입회하에 절차대로 조사한 만큼 수사과정에는 문제가 없었다”고 밝혔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낙태죄 위헌 여부 가리기 현재 내달 24일 공개변론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가리기 위한 공개변론이 열린다.

헌법재판소는 다음달 24일 현재 대심판정에서 의사 A씨가 낙태죄를 규정한 형법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의 공개변론을 연다고 20일 밝혔다. 현재는 지난해 2월 이 사건을 접수해 1년 1개월째 심리 중이다.

“자기낙태죄”로 불리는 형법 269조 1항은 임신한 여성이 낙태한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한다는 내용이다. 270조 1항은 의사가 임신한 여성의 동의를 받아 낙태한 경우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하는 ‘동의낙태죄’ 조항이다.

현재가 낙태죄의 위헌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2012년 8월 ‘동의낙태죄’ 규정이 합헌이라고 결정한 후 5년 8개월 만이다. 당시 현재는 “태아는 그 자체로 모(母)와 별개의 생명체이고, 특별

한 사정이 없으면 인간으로 성장할 가능성이 크므로 생명권이 인정돼야 한다”며 처벌 규정을 합헌이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당시도 심리에 참여한 8명의 재판관 중 절반인 4명이 위헌 의견을 낼 정도로 찬반양론이 팽팽하게 맞섰다. 위헌정족수인 6명을 가까스로 모면해 합헌결정이 내려진 사건이었다.

이번에 판결할 9명의 헌법 재판관 중 6명은 국회 인사청문회 등 여러 경로를 통해 낙태죄의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 손질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내비친 바 있어 위헌 판결 가능성이 큰 것으로 전해진다.

한편, 낙태죄 폐지 청와대 국민청원은 정원 시작 한 달만에 20만명의 동의를 얻어 ‘청원답변 2호’로 채택된 바 있다. /박진표기자 lucky@연합뉴스



식목일 나무심기

20일 광주시 광산구 평동 옥동근린공원에서 열린 ‘제73회 식목일 나무심기’ 행사에 참석한 자원봉사자들이 이목서와 철쭉을 심고 있다. /최현태기자 choi@kwangju.co.kr

외국인 근로자 숨진 채 발견

이틀 동안 결근한 외국인 근로자가 숙소에서 숨진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20일 목포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 10분께 목포시 한 원룸에서 러시아 국적 이주노동자 A(여·46)씨가 숨져있는 것을 회사 동료가 발견, 경찰에 신고했다. 목포 한 조선업체에서 일하는 A씨는 회

사 관계자에게 전화를 걸어 ‘몸이 아프다’라는 말을 남긴 뒤 지난 18일부터 출근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사 측은 A씨가 이틀째 결근하면서 숙소 배정된 원룸에 직원을 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외부 침입이나 몸싸움 흔적은 없는 것으로 보고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A씨 시신 부검을 의뢰해 사망원인을 규명할 방침이다. /목포=김병관기자 dss6116@

금감원 직원 사칭 보이스피싱 사기 20대 검거

검사와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해 전화 금융사기(보이스피싱)를 벌인 20대가 경찰에 붙잡혔다.

광주광산경찰청 “보이스피싱 사기 혐의로 이모(22)씨를 붙잡아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금융감독원 직원을 사칭한 이씨는 지난

16일 오전 9시경 광주에 사는 박모(여·25)씨의 연락한 뒤 은행계좌가 범행에 연루됐다고 속여 박씨를 서울 강남구 수서동 SRT 수서역으로 불러내 800만원을 가로채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날 박씨는 “당신의 은행계좌가 범행에 사용됐으니 돈을 인출해 금융감독원 직

원에 건네야 한다. 전화를 끊으면 공범으로 간주하겠다”는 전화를 받은 이후 비아파출소를 찾아가 도움을 요청했다.

우리은행의 협조를 받은 경찰은 휴대전화통화 기록을 통해 돈 세는 기계음을 보이스피싱 조직에 들려준 뒤 허위로 인출한 돈다발 사진을 보내는 방법으로 보이스피싱 조직원을 유인해 검거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버스정류장서 성추행

순천경찰 간부 입건

순천의 한 경찰 간부가 한 버스정류장에서 여성을 성추행을 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순천경찰청은 “여성의 신체를 만진 혐의(강제추행)로 목포경찰서 소속 A경감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지난 17일 오후 8시 30분께 순천시 장천동 한 버스정류장에서 지인인 40대 여성을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술에 취한 것으로 보이는 남성인 여성을 추행하고 있다는 시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전남지방경찰청은 A씨를 직위 해제하고 조사 결과가 나오는 대로 징계 조치할 방침이다. /순천=김은종기자 ejkim@

성폭행 의혹 제기 여성 상대 김흥국, 손해배상 소송 제기

30대 여성을 성폭행했다는 의혹에 휩싸인 가수 김흥국(59)이 의혹을 제기한 여성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흥국은 성폭행 피해를 주장한 여성 A씨를 상대로 2억원 지급을 청구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냈다.

한편 보험설계사였던 A씨는 지난 14일 한 언론과의 인터뷰를 통해 김흥국을 비롯한 지인들과 술을 마시다가 정신을 잃었고, 깨어보니 김흥국과 나란히 누워있었다며 성폭행 피해를 주장했다. /연합뉴스

술 취해 집 착각하고 폭력까지

○...술에 취해 다른 사람의 집을 자신의 집으로 착각한 30대가 출동한 경찰관을 발로 찼다가 경찰서행.

○...20일 광주광산경찰청에 따르면 정모(34)씨는 이날 자정께 광주시 광산구 장덕동 한 아파트 10층 복도에서 소리를 지르고 “문을 열어달라”며 행패를 부리던 중 아파트 주민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수완지구대 소속 남모(40)경위의 형광색 조끼를 찢고 발로 복부와 둔부를 수차례 차는 등 공무원행방해를 한 혐의.

○...경찰조사결과 정씨는 이 아파트 8층에 사는 주민으로 밝혀졌는데, 경찰 관계자는 “이씨가 술에 취해 8층이 아닌 10층으로 간 것으로 보인다”면서 “주변인들을 상대로 이씨의 상습 여부를 확인한 뒤 신변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김현영기자 young@kwangju.co.kr



지오옥션 부동산 중개법인(주)
20년경력 조여사 010-6211-4585

경, 공매 컨설팅

수익형 추천 물건

- ★ [건물] 광주 동구 금남로57(중심상업지구) 토지 : 912,50㎡ 건물 : 1,477,64㎡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 85억 대로변, 광주롯데백화점 인근
- ★ [건물] 광주 광산구 송정동 (일반상업지역) 토지 : 1,349㎡ 건물 : 1,350,0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60억 대로변, 광주송정역 인근
- ★ [건물] 광주 동구 지산동 (제2종일반주거지역) 토지 : 191,03㎡ 건물 : 728,97㎡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 27억 광주법원 정문 앞
- ★ [건물] 광주 북구 일곡동 토지 : 7,662.4㎡ 건물 : 6,864.61㎡ 지상 3층 매매가 95억 (보종금 4억2천, 월차임료2천6백만 - 사우나·휘트니스 직영 중) 대로변, 아파트밀집지역, 복합사우나건물, 대출60억
- ★ [건물] 광주 동구 장동 (준주거지역) 토지 : 136,20㎡ 건물 : 265,58㎡ 지하층 지상3층 매매가 : 12억 대로변, 아시아문화전당 맞은편
- ★ [건물] 광주 서구 농성동 (준주거지역) 토지 : 3,104.6㎡ 건물 : 11,543.18㎡ 지상9층 매매가 : 100억 대로변, 지하철역세권, 전시효과 최상, 수익률최상 근린상가·요양병원(350베드이상) 적합-(상가)와 요양병원 복합도 가능)

병원

- ★ [의료시설] 광주 북구 운암동 토지 : 2,769㎡ 건물 : 3,793㎡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70억 병원, 학원, 사옥 적합 (중증가능)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학동 토지 : 619,62㎡ 건물 : 1,458,86㎡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30억 아파트 밀집지역, 대로변, 조대병원인접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산수동 토지 : 596,70㎡ 건물 : 948,58㎡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23억 사옥적합(전시효과 최상), 대로변, 안질환도
- ★ [의료시설] 광주 동구 대인동 토지 : 514,40㎡ 건물 : 2,143,08㎡ 지하층 지상5층 매매가 32억 약국, 병원, 업무시설 적합
- ★ [의료시설] 광주 광산구 신가동 토지 : 2,756㎡ 건물 : 3,568,32㎡ 지하층 지상4층 매매가 56억 상담 후 결정
- ★ [의료시설] 광주 서구 농성동 토지 : 2,319㎡ 건물 : 3,998,33㎡ 지상5층 매매가 : 65억 도로변, 광주 신세계백화점 인근

경매 추천 물건

- ★ 광주 광산구 장덕동(근린주택) - 지상3층 토지 : 340,4㎡ 건물 : 510,09㎡ 감정이 : 721,968,950원 최저가 : 505,378,000원 수완지구, 다가구주택밀집지역
- ★ 장성군 삼서면 두월리(공장) 토지 : 27,403㎡ 건물 : 1,454,36㎡ 감정이 : 1,706,257,600원 최저가 : 1,194,380,000원
- ★ 영광군 군서면 송학리(공장) 토지 : 2,329㎡ 건물 : 844,08㎡ 감정이 : 1,024,812,000원 최저가 : 367,292,000원
- ★ 담양군 담양읍 삼다리(숙박시설) 토지 : 3,319㎡ 건물 : 2,480,7㎡ 감정이 : 3,024,288,500원 최저가 : 1,693,602,000원
- ★ 화순군 도곡면 천암리(숙박시설) - 무인텔, 2개동(32개실) 토지 : 3,673㎡ 건물 : 3,037,52㎡ 감정이 : 3,744,229,960원 최저가 : 1,677,415,000원

광주·전남 병원건물(요양, 한방) 매매·임대 다량보유 / 사우나건물 전문상담

공인중개사 전민규 062-714-2251, 010-4234-8640